

# 일상에서 누리는 공연문화 환경 조성



심청전



춘향전



남원시 어현동 광광단지에 위치하며, 우리나라 전통국악과 현대적 요소를 조화롭게 만드는 국립민속국악원(원장 왕기석)은 올해 8월부터 지하주차장 건립 및 공연장 로비 확장공사 등 시설 현대화를 총 사업비 123억이 투입해 2022년 완공할 예정이다.

이에 올 상반기에는 원내에서 집중적으로 공연을 추진하고, 공사기간에는 서울국립국악원과 남원 및 인근 지역 등에서 공연을 추진할 계획이며, 2021년도 국립민속국악원의 주요 사업계획을 발표해 그 내용을 살펴본다.

주요 사업내용은 ▲기관 특성화 전략에 따른 작품 제작 및 역량강화 ▲일상에서 누리는 공연문화 환경조성 ▲지역 자원을 활용한 상생 및 국악 콘텐츠 신 한류 확산 ▲지속 가능한 국악생태계 조성 및 저변확대, ▲민속악 진흥을 위한 기반조성 및 연구기능 강화 등이다.



홍보전

### 작품제작 및 역량강화

'제3회 대한민국 판놀이'에서는 창극을 비롯한 소리극, 창작극, 음악극, 연희 등을 총망라하는 축제의 장을 펼친다.

민속국악원의 대표작품 '춘향전' 개막공연을 시작으로 전국의 우수 단체작품을 선보이는 '별별창극', 그 시절 명인, 명무, 명창의 이야기 토크쇼(藝談)와 창극의 전성기를 누린 전설들의 무대가 펼쳐지는 '명불허전' 등 창극의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축제의 장이 6월 한 달간 열린다.

특히 올해 '별별창극'은 전국의 우수 단체작품을 공모를 통해 선정한 참신한 작품을 무대에 올릴 예정이다.

국립국악원 개관 70주년 행사의 일환으로 4월 '춘향전' 10월 '별난각시'를 제작해 국립국악원 예약당에서 선보인다. 국악연주단 정기공연은 단원들의 역량강화 및 레퍼토리 확장을 위한 무대로 무용단, 기악단이 전통예술행사로 각 단의 정체성이 돋보이는 작품을 하반기에 선보일 예정이다.

### 공연문화 환경 조성

민속국악원은 문화가 있는 날 기획공연, 상설공연, 명절공연 등을 통해 고품질 국악 향유 기회를 확대한다. 다양한 장르별, 대상별, 주제별 상설 기획 공연을 활성화한다.

차와 이야기가 있는 '다담' 공연은 향긋한 차 한 잔을 마시며 명사들의 이야기에 공감하고 우리 음악의 아름다움에 흠뻑 빠질 수 있는 무대로 3월부터 11월까지 문화가 있는 날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에 예원당, 남원시립김병종미술관에서 진행하고, 다양한 장르의 전통예술공연 '목요다라'는 매주 목요일 전통공연양식에 예술적 깊이를 더한 21세기형 풍류무대 공연으로 3월~5월까지 13회 마

련한다.

또한 유아 및 어린이 눈높이 공연을 선보여 가족단위 관람객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어린이공연 '이야기 보따리'는 4월~5월 매주 토요일 총 12회 진행한다. 특히 판소리 고장의 특수성을 부각시켜 판소리 완창무대 '소리판'이 김영자 명창과 이난초 명창의 명인 초청무대를 비롯해 공모로 선정된 초·중·고등학생들의 꿈나무 무대와 소리꾼들의 완창 무대까지 3월부터 7월 매주 토요일 상설 공연으로 진행된다.

판소리 인문학 해설과 공연이 펼쳐지는 '담판'은 3월 수요일 총 4회 수궁가를 주제로 해설과 공연이 함께 펼쳐진다.

### 국악 콘텐츠 신 한류 확산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한 고품격 공연인 '광한루원 음악회'는 5월과 9월 관광객을 대상으로 남원의 대표 관광지인 광한루원 내 안원정에서 개최한다.

춘향제, 흥부제, 박물관 등 지역관광을 활용해 지역사회와 상생 할 수 있는 대외협력 공연과 지역 간 국립국악단체와의 교류협력 공연, 초청공연, 송년공연 등 기관 이미지 제고와 전통예술의 향유 기회를 제공한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직접 교류가 어려운 상황을 감안해 다양한 전통예술 콘텐츠를 향유하고 지속 가능한 문화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외문화홍보원과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판소리 다섯바탕의 눈대목을 활용하여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보급할 예정이다.

### 국악 생태계 조성 및 저변확대

일반인들이 국악 감성을 통해 국악 저변확대에 기여하고 건전한 여가 문화를 선도할

창극 전설들의 무대 '명불허전' 등 6월 개최 문화가 있는 날 기획 등 통해 국악 향유기회 확대 지속 가능 문화교류 위해 해외문화홍보원과 협력 지역민 1인 1악기 연주 생활문화 환경 조성 앞장 '민속악 포럼'으로 민속악 연구기반 강화

수 있도록 지역민들이 1인 1악기를 연주할 수 있는 생활문화 환경 조성에 앞장선다.

일반인국악강좌 '청출어람'은 해금, 가야금, 고법, 설장구, 한국무용장단 등 5개 강좌가 3월부터 7월까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운영, 이동형 차랑을 이용해 문화를 접하기 어려운 지역을 찾아가는 문화 소외지역민을 위한 맞춤형 공연 '달리는 국악무대'가 10회 개최되고, 공모를 통해 도시간 지역 및 문화소외계층을 위한 공연으로 진행된다.

또한, 유아 대상 놀이형 국악체험공연 '덕덕국악놀이 10회' 어린이·청소년을 위한 국악문화탐방 '국악은 내 친구 5회', 일반인 관광객을 위한 맞춤형 예약제 공연 '남원 풍류 5회', 박물관 음악회 '박물관 속 우리음악 15회' 등 지역 관람객 저변확대 및 국악 활성화에 기여한다.

여름방학 2주 동안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창극공연을 직접 만들어가는 과정을 배우는 '틴틴창극교실', 대면수업이 어려운 시기 온라인 수업을 통해 판소리를 배우고 국악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온라인 청소년 국악강좌', 자유학년제 시행으로 국악강사를 파견

하는 '국악세상-이음' 등 지속적인 국악 생태교조성과 저변확대에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며, 문화소외계층인 도서, 벽지학교 청소년들에게 국악체험의 기회를 통해 문화소양을 함양시킬 수 있도록 1박 2일간 남원지역이 초청해 국악도 배우고, 공연도 보고, 남원지역의 문화를 살펴볼 수 있는 '즐거움 국악산책' 교육프로그램을 10회 진행한다.

### 민속악 진흥을 위한 기반조성

민속악 연구기반 강화에 힘쓰고자 '제7회 민속악 포럼'을 개최하고, 국악에 대한 전국적인 관심확산을 위해 방송으로 제작해 토론의 장을 마련하고, 판소리 중심 기관으로 정체성 확립 및 민간자료 활용방안으로 음반 제작과 판소리 한글화 사업을 진행한다.

음반은 판소리 눈대목 1집 '춘향가' 중 사랑가, 속대머리, 십장가 등으로 국립민속국악원 단원이 직접 참여한다. 또한 판소리 한글화 작업에서 판소리 사설을 풀이하는 것이 아닌 현대적 의미로 재해석해 외국어 등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할 예정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생활 속 향유될 수 있도록 다가갈 것”

### ▶ 왕기석 원장의 포부

왕기석 원장은 2018년부터 3년간 국립민속국악원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 민속악의 플랫폼으로 작품 제작 및 개발, 유통, 지역 관광 자원을 활용하고 지역 사회와 상생할 수 있는 전통예술의 향유 기회를 확대했다.

특히 임기가 2021년 5월 28일부터 2023년 5월 27일까지 2년 연장되면서 민속국악원이 지역에서 국립기관의 역할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에 대한 다짐으로 왕기석 원장은 “지역에서 국악이 생활 속에 향유될 수 있도록 다가가고, 더 나아가 국악이 세계로 뻗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유네스코 고창 생물권보전지역

UNESCO Gochang Biosphere Reserve

한반도 첫 수도 고창의 높은 위상과 천혜의 자연에서 자란 높은 품질의 고창 농수축산품을 소비자에게 정직하게 전달하겠습니다.

고창 학원관광농장


